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성별 및 학년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유 석

2016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성별 및 학년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Temple stay' s Experience elements on Adolescent' s Emot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Grade -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 유 석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희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정유석

# 정유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성 종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용 섭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희 서    (인)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 목 차 -

ABSTRACT .....	vii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 범위 .....	3
2. 연구 방법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	9
제 1 절 템플스테이의 이해 .....	9
1. 템플스테이의 연혁 및 등장배경 .....	9
2. 템플스테이의 개념 .....	11
3. 템플스테이의 유형 .....	13
4.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14
제 2 절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 .....	21
1.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와 추억, 감정, 자아정체감의 관계 .....	21
2. Pine & Gilmore의 체험요소 .....	25
가. 오락적 체험요소 .....	25

나. 교육적 체험요소 .....	25
다. 일탈적 체험요소 .....	25
라. 심미적 체험요소 .....	26
3. 종교적 체험요소 .....	26
제 3 절 템플스테이의 정서적 치유효과 .....	28
1. 추억 .....	28
2. 감정 .....	29
3. 자아정체감 .....	29
제 4 절 선행연구 .....	31
제 3 장 연구 설계 .....	34
제 1 절 연구 모형 .....	34
제 2 절 연구 가설 .....	35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	36
제 4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	37
제 4 장 실증분석 .....	39
제 1 절 표본의 특성 .....	39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	40
1. 타당도 분석 .....	40
2. 신뢰도 분석 .....	43
제 3 절 기술통계 .....	44



제 4 절 가설의 검증 .....	48
1.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	48
2.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	52
3. 체험요소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58
4. 추억과 감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59
제 6 절 분석결과 논의 .....	60
제 5 장 결론 .....	67
제 1 절 분석결과 요약 .....	6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68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	69
참고문헌 .....	71
부록 .....	75
부록 1. 템플스테이 실시 사찰 현황 .....	75
부록 2. 설문지 .....	77

## - 표 목 차 -

표 3-1 설문지의 구성 .....	37
표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39
표 4-2 체험요소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분석 .....	42
표 4-3 신뢰도 분석 .....	43
표 4-4 기술통계 .....	44
표 4-5 상관관계 .....	45
표 4-6 성별에 따른 차이 .....	46
표 4-7 학년에 따른 차이 .....	47
표 4-8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	48
표 4-9 체험요소와 추억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모형 요약 .....	49
표 4-10 체험요소와 추억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	50
표 4-11 성별에 따른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비교 .....	51
표 4-12 학년에 따른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비교 .....	52
표 4-13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	53

표 4-14 체험요소와 감정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모형 요약 ..... 54

표 4-15 체험요소와 감정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검증 ..... 55

표 4-16 성별에 따른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비교  
 ..... 57

표 4-17 학년에 따른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비교 .....58

표 4-18 체험요소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59

표 4-19 추억과 감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0

표 4-20 연구 결과 요약 ..... 63

## - 도 목 차 -

그림 1-1 연구 과정 .....	8
그림 2-1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수 및 참가자 수 .....	11
그림 2-2 체험의 4가지 영역 .....	22
그림 2-3 순례자와 관광자의 경로 .....	27
그림 3-1 연구 모형 .....	34
그림 4-1 심미적 체험요소와 감정 간 성별의 조절효과 .....	56
그림 4-2 종교적 체험요소와 감정 간 성별의 조절효과 .....	56

## ABSTRACT

### The Effects of Temple stay's Experience elements on Adolescent's Emot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Grade -

Jung Yu-seok

Advisor : Prof. Hwie-seo Park Ge.D

Major in General Societ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emple Stay is a foreign culture, says inspectors have reported seeing Korea's traditional Buddhist culture and experience of everyday life and performer ever to live in the traditional temples of Buddhist culture well preserved circular Experience Program. This culminated aspects of hands-on sightseeing to stay in the living room of the templ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lso Temple stay will have the complex nature of such stays Temple by Activities of the natural environment unique place in our country temple a temple tourism and leisure functions, cultural experience as General and educational function, religion performs functions, ecological conservation features ha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mple Temple stay youths Utilization for youth in conjunction with the schools in religious stance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dentity confusion. That is, the temple Temple stay is intended to find out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changes and

positive emotions and ego identity established by School Adjustment of youth social work practice busi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0 people surveyed J middle school students concentrate (1, 2, 3 grade) located in Gwang-ju Gwangsan. Data collection will evaluate the impact did this just before temple stay experience, after one week temple stay experience by conducting a survey shot twice temple stay experience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nges that occur in students some degree of change.

The students' stress level through the first temple stay was significantly reduced as a result after Temple stay experience. It can be said that the students have the admissions competition, academic achievement, effective escape from the repetitive routine as it through meditation and penance in nature control your mind at rest that the healing of their own mind through the Temple Stay have. And the students themselves away from the arms of parents through temple stay program can be seen that the programs themselves and do their meditation and establish ego identity by performing a heart. Also, you can see that while experiencing the various temple stay program for students away from the pressure on the admissions competition and academic treatment of the nature and one mind and body and is a good opportunity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of the body group feels euphoria there was.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목적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형성하며 성장할 때 비로소 사회와 국가는 발전한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확립되는 청소년기는 개인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 및 국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E.H. Erikson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겪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한 경우, 자아정체감이 확립됨으로써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인 성실성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성실성은 사회적인 관습, 윤리, 가치를 지각하고 이를 지키는 능력을 내포한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겪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자아의 혼돈인 정체감 혼미, 정체감 혼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잃게 됨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직업 선택이나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학업을 중단해버리기도 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인정 외, 2002).

서용석(2014)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경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계층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주류 소비 1위, 이혼율 3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행복감도 낮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져감에 따라 국민들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며 물질남용 등을 바탕으로 한 심각한 문제들이

청소년들을 자극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한 학습이 실시되어야 할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흡연 및 음주 문제들은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독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 개발원(청소년 생활환경개선 종합대책 :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 에 관한 연구, 1996)에서는 흡연 및 음주, 가출, 학교 부적응, 폭력 및 성폭력, 약물 남용 및 중독, 자살 등을 청소년 문제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가정이나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 측면에서도 함께 예방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하였다(한국 청소년 개발원,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01).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 각계나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 그리고 상처에 대한 위로와 함께 심신의 피로감을 달래 주며 치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종교계의 노력을 살펴보자면 종교계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이나 정서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계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신뢰감을 심어주고, 학교생활 적응에 힘이 되어주고, 청소년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으로서의 사찰 템플스테이를 열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템플스테이는 사찰을 방문하는 차원의 템플스테이를 넘어서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 사찰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변 문화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참가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융합시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는 21세기 관광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분야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관광자원으로써 템플스테이를 확대 및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김용훈,



2011). 따라서 각 사찰에서도 일원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만을 실시하기보다는 각 연령층에 특화된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이론과 학문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템플스테이가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어서, 템플스테이가 청소년의 정서 및 감정, 추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종교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템플스테이의 체험 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들의 추억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감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추억과 감정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학년별, 성별로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정체감 혼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종교계의 입장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사찰 템플스테이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것, 즉 사찰 템플스테이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실천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정서변화와 자아정체감 확립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청소년들이 체험한 템플스테이의 요소들에 따른 감정과 추억, 그리고 그러한 감정과 추억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템플스테이가 청소년의 자아정체

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국내외의 선행 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써 관련된 이론적, 학문적 측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 방법에 필요한 변수를 도출하여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J 중학교 재학생(1, 2, 3학년) 중 1박 2일간의 흥국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을 이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J 중학교가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불교 중립학교로서, 학교 특성 중점 업무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우에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앞으로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이인정 외, 2002)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며, 연구를 통해 이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템플스테이의 각종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적 측면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를 선정하였다. Pine & Gilmore(1998)가 분류한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와 종교적 체험요소(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5가지 체험요소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선정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각종 체험요소가 청소년들의 감정과 추억, 그리고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선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 선정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학년별,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는 동일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를 체험하더라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졌다. 먼저 템플스테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템플스테이의 연혁 및 등장배경, 개념,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Pine & Gilmore 의 체험요소인 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체험요소와 종교적 체험요소(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5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도구의 개발, 설문지 구성에 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

제 4장은 실증분석의 단계로 표본에 대한 파악과 함께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과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 5장은 앞에서 실시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본 연구에 따른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의 체험 요소들이 청소년들의 감정과 추억,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추억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감 혼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바탕으로 템플스테이의 등장

배경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Pine & Gilmore의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로 분류하고 박도윤(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종교적 체험요소까지 총 5가지 체험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김민자(2014, 템플스테이 체험이 감정 및 여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내국인과 외국인 비교), 김수성(2002, 외국인 관광객의 템플스테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도윤(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용석(2014,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심신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경동(2008, 템플스테이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송은정(2014, 템플스테이 참여 동기와 체험치유 관계), 심원섭·김자영(2011, 템플스테이 참가동기와 체험만족도 비교 연구), 전병길·정운조(2008, 템플스테이 체험 과정에서 사찰환경이 참가자의 감정·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1, 템플스테이 체험과 체험 후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최유석(2000, 중학생 수련활동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등 의 선행연구와 한국문화 관광연구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 청소년 연구원의 각종 내부 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류한 템플스테이의 체험 요소가 청소년의 감정과 추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여수 소재의 흥국사로 설정하여 이러한 시, 공간적 범위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광주광역시 소재의 J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연구 대상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는 제외한 후, 나머지 유효한 표본만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일

반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빈도분석부터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타당도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술통계 분석과 변수별 차이 분석을 위한 T검증분석과 ANOVA 분산 분석, 독립변수인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들이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들이 청소년의 추억 및 감정, 그리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림1-1> 연구 과정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템플스테이의 이해

#### 1. 템플스테이의 연혁 및 등장배경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고유 관광 상품이 개발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템플스테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는 문화 월드컵의 면모를 과시함과 동시에 부족한 숙박 공간을 해결하며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템플스테이가 시작되었다.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불교와 사찰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편화하려는 불교계의 입장, 그리고 특별하고 색다른 우리나라만의 숙박시설과 문화를 발굴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맞아 떨어져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템플스테이는 불교계의 노력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33개 사찰에서 26개국의 991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며 시작되었으며, 약 20개 국가의 주한 외교관과 가족 40여명이 참가한 템플스테이가 CNN, BBC, AP통신, 후지TV등을 통해 세계에 소개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김용훈, 2011, 체험경제 시대의 템플스테이의 관광만족에 대한 연구). 이는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과 문화로서 템플스테이가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37,372명 중 약 90% 이상의 참가자가 내국인이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04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 5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템플스테이가 실시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수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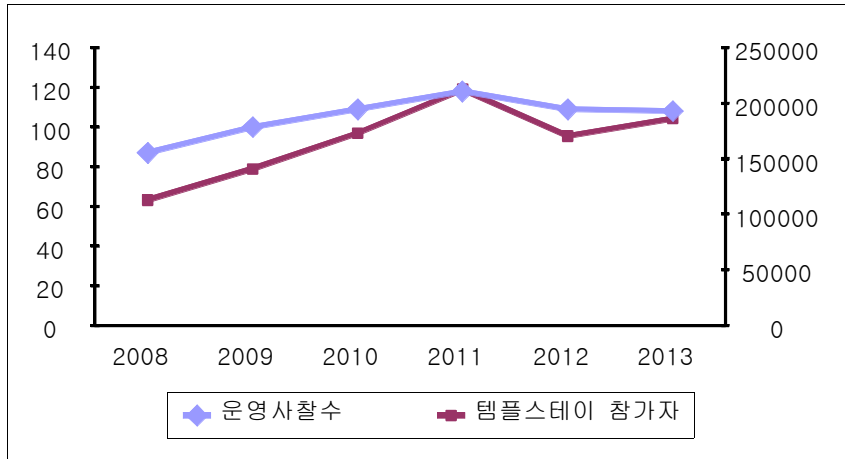
개, 그리고 참여한 방한 외국인도 991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 수는 118개로 200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연평균 약 40% 성장하여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템플스테이 총 참여 인원수는 71만 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템플스테이의 실시가 우리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템플스테이가 실시되기 전에는 단지 불교 신자와 승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찰이라는 장소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장소로 변화시켰으며, 사찰의 문화가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로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아울러 불교계에는 일상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었던 불교의 사찰, 그리고 문화와 역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200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고유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자리매김하였으며, 국내를 비롯한 국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템플스테이를 위한 사찰의 시설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홍보 및 관련 마케팅 활동에 6.583백만 원(2013년 기준)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문화 체험형 고급 관광 상품으로서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체험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그림 2-1>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수 및 참가자 수



출처 : 불교문화사업단

또한 템플스테이 사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국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또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110여개의 사찰과 그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 자원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한다. 관광 상품으로써의 템플스테이는 관광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인 웰빙, 슬로우 푸드, 힐링 등에 부합하는 관광 상품으로써 우리나라만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템플스테이 사무국, 2009, 템플스테이 평가 및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

## 2. 템플스테이의 개념

템플스테이(Temple stay)는 사회 현상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원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찰’을 의미하는 Temple,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tay의 합성어이다. 즉 템플스테이의 사전적 의미는 ‘사찰에서 머무르다’라고 볼 수 있다(석경동, 2008).

한국 불교 전통문화체험인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내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사찰에 산문을 열게 함으로부터 새벽 예불에서 저녁 공양까지 이르는 승려의 수행생활을 공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사찰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발우 공양과 다도 체험, 대장경의 인경과 탁본, 선무도 등 사찰에서만 전해 내려왔던 각종 수행방식 및 생활방식을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고유의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직접 머무르면서,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경험함과 동시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문화적인 체험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관습과 불교사찰의식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깨달음과 체험의 기회가 되고 있다(김수성, 외국인 관광객의 템플스테이(Temple Stay)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2).

정병웅(2002)은 템플스테이란 일시적인 구성원으로서 외부인이 사찰의 일상생활과 의례에 참여하여 느끼고 체험하는 사찰체험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허갑중(2004)은 템플스테이를 법회, 참선, 다례, 예불, 발우 공양 등 사찰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기 위해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사찰에 머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석경동(2008)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란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체험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체험하는 생활 체험이자 종합문화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2009년 OECD에서는 한국의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참선, 발우 공양, 예불 등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템플스테이는 종교관광과 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관광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종주·윤지현, 2012).

위와 같이 템플스테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템플스테이란 ‘일시적’으로 ‘사찰’에 머무르면서 ‘사찰활동’을 ‘체험’하는 ‘불교문화체험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템플스테이의 유형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찰 템플스테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사찰에 대한 안내, 발우 공양, 아침과 저녁에 실시되는 예불, 참선, 다도, 율력, 연등 만들기, 염주 만들기, 사찰 주변의 숲길 산책 및 명상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각 사찰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사, 그리고 문화를 통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문화나 역사와 연계한 한국 전통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찰 주변의 환경 속에서 환경의식을 키우고 자연과의 교감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형 프로그램,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한 휴식형 프로그램 등이 있다(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먼저 기본형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찰마다 운영방식이 다소 상이하게 구성되고 운영된다. 휴식형 프로그램은 사찰의 문화와 사찰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휴식을 얻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며, 프로그램 참여와 시간의 활용이 다른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여유로운 편이다. 불교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은 사찰이 지니고 있는 유형의 불교적 자산을 비롯하여 무형의 불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은 사찰 주변의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은 사찰이 소재한 지역의 특색이 담긴 문화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행형 프로그램은 명상과 참선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과 이를 통한 자아성찰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템플 라이프는 당일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템플 라이프는 단시간 동안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 참가자가 많은 편이다. 특수형 프로그램은 위의 다른 유형들로 분류할 수 없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나, 지역 축제나 스

포츠 이벤트 등과 연계하여 특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말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템플스테이 평가 및 운영활성화 방안; 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4.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J중학교 학생들이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체험한 주요 프로그램 (승려와의 대화, 나에게 쓰는 편지, 명상의 시간, 발우 공양, 국궁 체험, 다도 예절 체험, 나를 찾는 108배)과 그에 따른 체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승려와의 대화

- (1) 목적 : 교사, 부모가 아닌 승려와 대화를 나누며 그 동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했던 일과 반성하는 일, 고민거리 등을 질의응답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하면서 좀 더 성숙한 청소년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이다.
- (2) 실천내용
  - (가) 참여대상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생
  - (나) 활동방법 : 대웅전에 모두 모여 승려와 바른 자세로 앉아 그동안 잘못했던 일이나 반성하는 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 (3) 결과 : 승려와 대화를 나누며 학생들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마련해보았다. 또한 친구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주변과 함께하는 삶, 배려, 상호간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 나. 나에게 쓰는 편지

(1) 목적 : 가정 및 학교, 지역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과 공감 및 배려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를 함양하고 자기반성 및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하는데 있다.

### (2) 실천내용

(가) 참여대상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생

(나) 활동방법 :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가정 및 학교, 지역 사회 속에서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베풀었는지 써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나에게 쓰는 편지’에 대하여 발표해보고, 앞으로 자신이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이와 더불어 공감과 배려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과 : 학생들은 경쟁의식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타인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재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시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감과 배려의식을 통한 친구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 다. 명상의 시간

(1) 목적 :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J 중학교의 설립이념인 불교 정신의 특성을 살려 불교의 수행방법 중 하나인 명상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인성을 순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명상의 방법을 익히고 명상을 실행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명상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에서 교칙을 준수하며, 사회에서 지켜야 할 질서 및 도덕적 규범의 실천을 생활화하게 한다.

(2) 실천내용

(가) 참여대상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생

(나) 활동방법 : 승려가 중앙에 앉아 좌선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두발은 가지런히 하고, 양손은 법계정인을 하고 머리를 곧게 세우며, 시선은 자기 코끝을 응시하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로 가지런히 한다. 또한 호흡은 단전에 이르도록 고요하고 깊게 한다. 잡념을 없애는 방법으로 호흡을 할 때 숫자를 헤아리며 숨이 들어가는 곳을 인지한다.

- ① 예비 : 학생 여러분, 잠시 후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시작 알림 : 지금부터 명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 ③ 죽비 3타
- ④ 명상 : 범종 12번 타종
- ⑤ 마침 알림 : 이상으로 명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 결과 :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평안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과 경쟁심의 문제를 깨닫고 반성하며, 함께하는 삶과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라. 발우 공양**

(1) 목적 : 승려가 평소 식사하는 것을 발우 공양이라고 한다. 입을 통해 맛보는 사찰음식만으로 승려의 깊고 긴 수양의 깊이와 고된 수행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반만 채우고 깨끗이 비워내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승려의 담박한 해탈의 지혜를 쌀 톨만큼이나마 닦아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실천내용

(가) 참여대상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생

(나) 활동방법 : 승려를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쭉 둘러앉는다. 발우는 국그릇, 밥그릇, 청수그릇, 찬그릇 4가지이며, 큰 그릇 안으로 작은 그릇이 들어간다. 학생생활지도교사가 청수물을 돌리면 그릇을 행구는 것을 시작으로 식사가 시작된다. 식사 후에도 그릇을 물로 행구고 남은 음식 없이 모두 먹은 후 청수물로 그릇을 행구어 그릇을 정리함으로 식사가 끝나게 된다. 공양 전에 손을 깨끗이 하고, 복장은 단정하게 하도록 한다. 또한 공양물을 단정하게 준비하도록 하고, 청수는 깨끗하고 승능은 맑아야 한다. 발우 공양을 할 때는 단정한 반가부좌 자세로 앉도록 하며, 공양 중에는 게양을 제외하고는 절대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공양할 때에 두리번거리지 않고, 음식 먹는 소리나 발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반드시 발우를 들고서 음식을 떠서 한입에 먹도록 하며, 큰 발우에는 맵고 짠 음식을 담지 않으며, 음식을 비벼 먹지 않도록 한다.

(3) 결과 : 모든 이가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는 것에서 평등사상을 배우고, 자기의 그릇은 자신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청결함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쌀알 한 톨이라도 그것을 지어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을 통해서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보다는 정신과 마음을 채우는 승려의 수양덕목을 배울 수 있었다.

**마. 국궁 체험**

(1) 목적 : 학문적 가치로써 체육학의 흐름이 점차 과학주의 정신으로 변색되어가며 논리적 지식으로 채워져 가는데, 실천적 지식을 요구하

는 국궁 체험의 현장에서는 전통무예의 수련의 과정에서 “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전통무예는 삶의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전통무예의 수련은 근본적으로 직접 체험을 통한 수련의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으로 이끌어 준다. 또한 전통무예의 목적은 겨루기의 상대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자의 수행력을 통해 자아를 파악하며 이와 더불어 자연의 기를 얻어 자신, 상대방, 자연의 삼자의 기를 통합시키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배경을 돌아보면 전통무예는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예적 놀이는 공동체 사회의 주요 이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주었다.

현대의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전통무예는 현대 건강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 (2) 실천내용

(가) 참여대상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생

(나) 활동방법 : 흥국사 뒤편에는 국궁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다. 50m 과녁과 100m 과녁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 6개의 부스에서 체험할 수 있다. 1부스 당 사수 1명씩 들어가서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사수가 화살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수가 활을 쏘면 부사수가 한발씩 전해주어서 다시 활을 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체험 전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실시하였다.

(다) 결과 : 국궁 체험을 통한 정신적인 참선의 과정과 도를 추구하려는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였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체험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비롯한 건강



한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며, ‘아는 지식’에 그치는 현대 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고,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었다.

## 바. 다도예절 체험

(1) 목적 : 차와 차 도구를 알고 차 마시는 법을 익히며, 승려와 맑은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2) 실천내용

(가) 참여대상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생

(나) 활동방법 : 찻잎을 우려서 차를 마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기본예절과 효도하는 마음, 사회에 대한 양심 교육의 측면까지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 다도는 찻잎을 다루며 주변을 정리하고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아울러 타인과 함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접하는데 필요한 예절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는 자신의 주변을 돌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기본 생활습관 능력 형성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의바른 태도를 갖는 기회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정서발달에도 매우 유익하다. 꾸준한 다도예절 생활 교육은 인성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 될 것이다.

(3) 행다 순서 : 학생은 정위치에 서서 조용히 앉으며 예를 올린 후, 편안한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찻상보를 접어서 오른쪽 정위치에 놓고, 준비된 백당을 물 식힘 사발에 따른 후, 다관에 옮겨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다관의 탕수를 찻잔마다 나누어 따라 가져내고, 식힌 탕수를 다관에 부은 후 차를 붓도록 한다. 달여진 차를 물을 식혀 사발에 따라 찻잔마다 옮기고, 봉차자가 주인에게 전해주면 주인은 찻

- 상보를 오른쪽 정위치에 놓은 후 진행하도록 한다. 주인은 왼쪽 봉차자와 오른쪽 봉차자에게 찻잔을 건네고, 봉차자는 차반을 들고 일어나 손님에게 다가가서 가벼운 초례를 한 후 진행한다. 이 때 찻잔은 손님의 왼쪽에 놓고 다식은 손님의 오른쪽에 놓고 정중하게 예를 올린 후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이 한 후 손님 옆에 앉는다. 차를 다 마신 후에 봉차자는 찻잔과 다식접시를 걸은 후 행례를 한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찻잔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찻상보를 오른쪽에 있는 봉차자에게 다음 왼쪽 봉차자에게 건넌 후, 주인과 찻상보를 나란히 덮도록 한다. 일어나 정중히 예를 올린 후 순서대로 물러나며 마무리한다.
- (4) 결과 : 기본 생활습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접하는 예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을 비롯하여 예의바른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되었다.

## 사. 나를 찾는 108배

- (1) 목적 : 진솔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참회 하면서 그 참회 속에서 참된 나를 찾고, 무거웠던 번민과 갈등을 참회를 통하여 모두 내려놓고자 한다.
- (2) 실천내용
- (가) 참여대상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생
- (나) 활동방법 : 학생들의 동작순서는 합장, 무릎 꿇기, 옆드리기, 상체 일으키기, 일어서기로 이루어진다. 양손을 모아 합장할 때는 팔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한다. 무릎 꿇기는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굽히며 옆드리고, 상체 일으키기를 할 때는 상체를 일으킨 후 합장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일어서기는 하체를 편 후 다시 처음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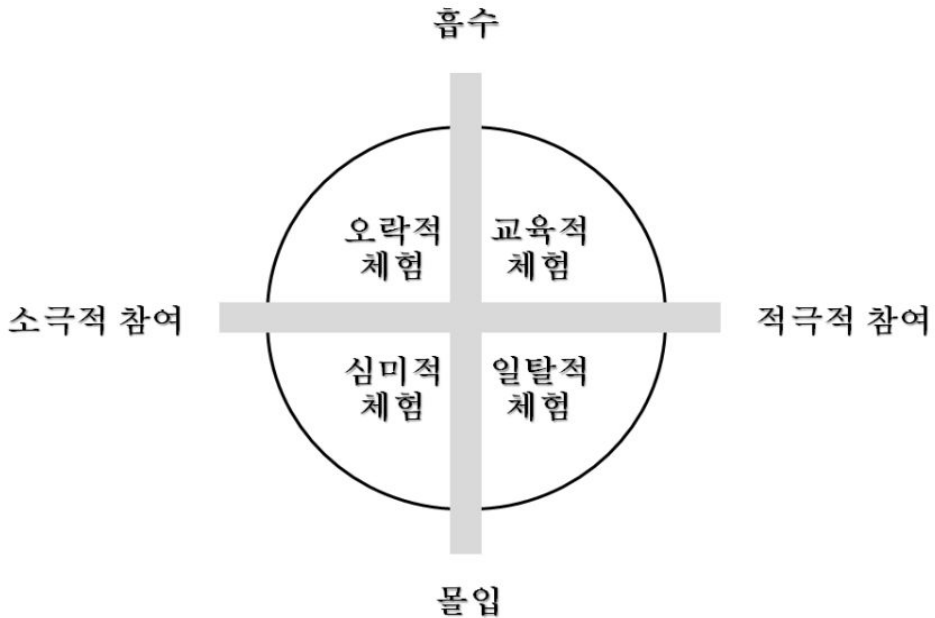
- (3) 결과 : 학생들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체내의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난날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며, 자신에 대하여 참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제 2 절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

### 1.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와 추억, 감정, 자아정체감의 관계

Pine & Gilmore에 따르면 체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써, 같은 체험을 한 어느 누구든지 동일한 체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경험했던 체험이 각 체험요소와 이를 체험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체험 후 며칠 또는 몇 십 년 동안이라도 그 체험의 가치와 추억은 개인의 기억에 정확하고 또렷하게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체험 자체는 무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체험상품을 높이 가치 있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체험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과거의 체험이나 현재의 심리상태에 따라 체험에 대한 기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Pine & Gilmore, 1999 ; Gilmore & Pine, 2002, The Experience is the Marketing; Gilmore & Pine, 2002, Differentiating Hospitality Operations via Experiences, 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2-2> 체험의 4가지 영역



Pine & Gilmore ( 출처 : Harvard Business Review, 1998 )

Pine & Gilmore(Harvard Business Review, 1998)는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체험경제 이론에서 강조한 4가지 체험요소를 위의 <그림 2-2>와 같이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2-2>의 수평축은 관광객의 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동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나누어진다. 또한 <그림 2-2>의 수직축은 관광객과 체험요소를 결합시키는 연결성이나 환경적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흡수와 몰입으로 나누어진다.

오락적 체험요소란 직접적 체험활동이나 간접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체험요소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참가자가 지각하는 지식의 증가 또는 기술의 향상을 의미한다. 심미적 체험요소는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참가자가 체험을 통해 느끼는 심미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탈적 체험요소는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참가자가 일상을 벗어나 체험대상에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Pine & Gilmore, 1998; 1999; 한숙영·엄서호, 2005; Oh, Fiore, & Jeoung, 2007; 하동현, 2009; 신동주, 2010; 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Pine & Gilmore(1999)는 오락적 체험은 책을 보고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는 등 감각을 통한 관람의 의미로 보았으며, 이러한 오락적 체험을 소극적인 체험 흡수라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적 체험은 배움에 있어서 체험자가 적극적인 교육 및 학습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체험이라고 보았다. 또한 심미적 체험은 관광지에서 있거나 조망만을 하는 체험,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장소에서 관람을 하는 체험과 같은 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일탈적 체험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카지노나 테마 공간과 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직접 행동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의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룬다면 특징 없던 공간이 특징을 지닌 장소로 변화하게 되며 소비자들은 그런 가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다(Pine & Gilmore, 1999). sweet spot는 이러한 4가지 체험요소가 잘 반영된 것이며,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일반상품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체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만한 최상의 체험상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Pine & Gilmore, 1999).

하동현(2009)은 대구와 경주를 방문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체험경제의 4Es를 적용하여 체험요소, 즐거움, 만족 및 선호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한숙영·엄서호(2005)는 이러한 Pine & Gilmore의 4가지 체험요소를 한산모시축제에 적용하여, 각각의 체험요소의 특성과 관광객의 만족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즉,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벤트가 그렇지 못한 이벤트보다 기억되어지기 더 쉽다는 뜻이다. 한편, 체험경제이론 관점에서 체

험에 대한 기억과 즐거움이 축제 체험의 4가지 요소와 만족도 및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를 잘 매개해주고 있다고 보았다(송학준 외, 2011; 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Pine & Gilmore(1999)의 체험경제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소비자들이 체험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잘 연출된 체험은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벤트에 대한 기억을 추억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체험 내의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는 즐거움과 특별한 기억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Oh *et al.*(2007)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 그리고 즐거움은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보았을 때는 충성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만족은 소비자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써 과다 성취 수준과 과소비를 포함한 즐거운 모든 수준에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받는지에 대한 판단이다(Oliver, 1997). 관광객의 만족이 관광 마케팅과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만족한 관광객의 재방문의도에 따라 잠재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관광목적지의 평가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Bitner, 1990; Eggert & Ulaga, 2002; 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Pine & Gilmore의 4가지 체험영역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4가지 체험요소와 함께 종교적 체험요소를 조합하여 프로그램에 응용하였다. 체험영역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감정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감정과 기억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이러한 템플스테이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Pine & Gilmore의 체험요소

Pine & Gilmore(1998)는 체험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수동적 참여의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으로 구분한 후 흡수의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과 몰입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으로 구분하였다.

### 가. 오락적 체험요소 (Entertainment experience)

참여자가 오감을 통해 쾌락적 감정과 유희적 기쁨을 지각하는 정도를 오락적 체험이라고 한다(신동주, 2010, 이벤트에서의 체험요소가 체험즐거움, 체험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오락적 체험은 콘서트나 영화를 관람하는 것, 독서와 같은 체험으로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체험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환경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몰입보다는 흡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나. 교육적 체험요소 (Education experience)

체험을 통하여 체험자 스스로의 지식이 증가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정도를 교육적 체험이라고 한다(Hosany & Witham, 2010). 또한 요가 레슨을 받거나 수영 강습을 받는 등의 교육적 체험들은 능동적 참여와 동시에 흡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다. 일탈적 체험요소 (Escape experience)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몰입하는 정도를 일탈적 체험이라고 한다(박근수, 황대욱, 2011, 원예활동 여가 프로그램이 농촌노인의 정신건강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에 비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번지점프를 하는 것 등과 같은 체험들은

능동적 참여와 몰입의 상태를 동시에 체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라. 심미적 체험요소 (Aesthetic experience)

주어진 체험 장소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만 즐기는 정도를 심미적 체험이라고 한다(Oh *et al.*, 2007; 조선, 2014, SIT 체험요인이 즐거움과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을 중심으로). 이는 단지 관광지 주변에서 조망만을 하거나, 미술관에 방문하여 감상만 하는 참여자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러한 체험자들의 몰입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Pine & Gilmore(1998)는 이러한 4가지 차원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sweet spot’ 이라 지칭하였다. 이러한 'sweet spot'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디즈니월드나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겜블링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게임은 고객들이 원하는 감명과 감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고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업은 체험을 연출해야 하고, 이러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그 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 주장하고 있다.

## 3. 종교적 체험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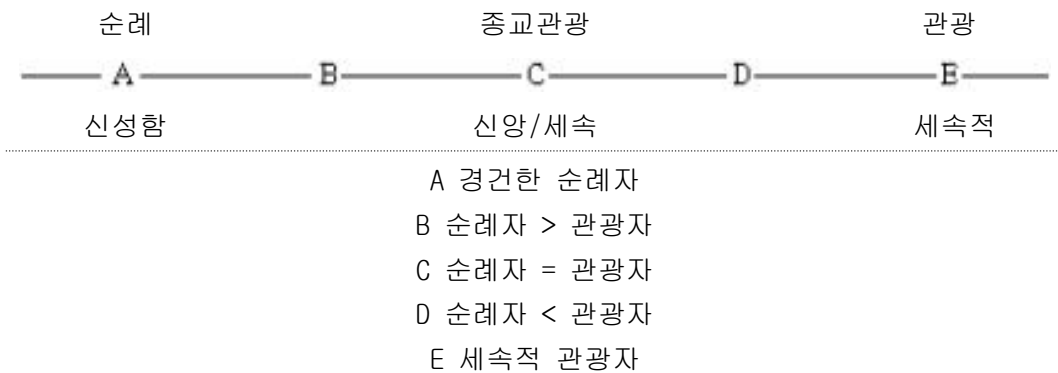
종교 인구로부터 관광자로의 전환 잠재력 때문에 종교적 체험요소 관광산업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종교관광의 성장잠재력에 따라서 종교관광은 세계관광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다. 또한 종교관광은 문화관광의 세분화된 형태로써,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으로써의 여행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체험(순례, 종교 매력물, 종교적인 행사 등)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의서, 2011). 또한 조승아·김태영(2011)은 종교관광이란 종교관련 축제와 종교 매력물 등 종교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병웅(1997)에 따르면 종교라는 요소는 관광의 중요한 목적이나 동기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로서, 현대의 관광에는 관광의 형태로써 종교관광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교관광은 특수목적관광인 문화관광으로써의 의미를 지니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종교관광이란 종교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동기가 부여된 여행으로 정의되고 있다(도경록, 2000; 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V.L. Smith(1992)는 아래 <그림 2-3>과 같이 순례와 관광을 신성함과 세속적이라는 두 가지 동기분야로 양극화하고, 종교관광의 여행 동기를 관광자와 순례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범주로 보고 있다. 이는 방문하게 된 동기나 그에 따른 행동에 있어 지극히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지극히 세부적인 것까지 다양한 범주에 속하게 되니 상호작용의 구조가 복잡하게 보이고 있다.

<그림 2-3> 순례자와 관광자의 경로



출처 : V.L. Smith (1992)

템플스테이는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의 특성과 동시에 종교관광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CTO(2006)는 종교관광의 매력요인을 순례, 종교적 장소, 종교의식으로 구분후 여러 요인들 때문에 관광객들의 관광과 기대를 유발한다고 한다. 따라서 템플스테이는 종교적 장소인 사찰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의 종교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다.

체험만족에 관련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템플스테이는 시설여건, 운영여건, 프로그램, 전통문화여건, 종교특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심원섭·김자영, 2011), 그 중에서도 심원섭·김자영(2011)은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체험만족도 분석항목을 템플스테이 사찰의 시설여건, 운영여건, 운영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불교문화체험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박도윤,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는 불교문화체험 연구의 측정항목과 템플스테이 동기(진영재, 2010)에 관한 측정항목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종교적 체험요소 측정항목 도출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ine & Gilmore의 4가지 체험요소와 함께 템플스테이의 불교적 체험요소, 즉 종교적 체험요소를 추가하여 총 5가지를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로 분류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 제 3 절 템플스테이의 정서적 치유효과

#### 1. 추억

기억은 크게 추억과 회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심상, 관념, 지식, 신념, 감정 등을 보존하며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을 말하며, 회상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추억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기억의 일부만 추억으로 형성되어 남게 된다. 추억이란 어떤 특정한 양태의 의식을 지칭하는데, 이 의식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시점의 과거 사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과거에 지각했던 여러 가지 물체들이 아무런 흔적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추억의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은 기억이라 일컬으며 그 기억 중에서도 더 정확한 질서가 존재할 때 추억이라고 말한다(강민주, 2012, 장만영 시에 나타난 추억의 의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오락적 체험과 교육적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요소를 통해 흥미와 질서가 존재하면서 추억이 형성된다.

## 2. 감정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자연교류감, 자기성장감, 교육 체험에 따른 지식획득감과 휴식 그리고 이완의 경험을 통해 행복감 그리고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전병길, 김민자, 2012; 전병길, 정윤조, 2011; 김민자, 2014, 템플스테이 체험이 감정 및 여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내국인과 외국인 비교). 특히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산사에서 느낄 수 있는 신행생활 체험과 명상, 그리고 자연교류감을 통해 느끼는 자기성장감 체험은 이완(e.g. 평온한, 편안한)은 물론이며, 행복감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끄집어낸다(정윤조, 전병길, 2009). 여가활동에서 지적자극 과 인지확장 등의 교육체험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이 있는 속성은 여가만족을 결정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Beard & Ragheb, 1983). 자기 향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템플스테이를 통한 전통 불교문화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동우(2008)는 자기표현, 자기결정, 해방감, 향상감, 자연교류, 사회교류 등의 다양한 여가체험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 반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병길, 김민자(2012)는 자연교류체험, 자기성장체험, 그리고 휴식체험 등 템플스테이 체험속성에 대한 충족이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김민자, 2014, 템플스테이 체험이 감정 및 여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내국인과 외국인 비교).

## 3. 자아정체감

E.H. Erikson이 1950년대에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서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10여 년간 임상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와 관련하여 자아정체감이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의미로 도입되면서 인간이해의 한 개념적 틀로 발전되었다(최선자, 2008, 비행청소년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사찰 템플스테이 효과성 연구). 따라서 E.H. Erikson은 자아정체감이란 자아(ego)가 그의

인격체계, 즉 원초아(id)와 자아, 초자아(super ego)의 세 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자각이란 자아의 통합방식이 개인적인 의미의 연속성과 동질성이 견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아정체감은 여러 가지 대인 관계와 역할, 그리고 목표와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적용되는 자기 일관성과 통합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무의식적 노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존재의 독특성과 동일성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이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타인과 같은 동기나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특별한 개인으로 인지하며 정체감을 이룩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종교적 사상에 대해서 추상적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종교적 교파에 대하여 이유를 가지고 이해하며 성인과 비슷한 종교 개념을 갖는다. 또 신을 조물주로서 자연현상과 관계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이론에서 출발하여 사실적인 것들로 다루어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사고의 영역을 상당히 넓혀준다. 신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여 비로소 바른 종교관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성숙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추상적 개념은 부처를 지각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부처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처는 성별의 문제를 떠남으로 남녀의 구별이 없다” 와 같은 응답을 한다.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현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상주의의 실제적 한계를 겪으며 변화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종교적 실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최선자, 2008, 비행청소년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사찰 템플스테이 효과성 연구).

## 제 4 절 선행연구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템플스테이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템플스테이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해연(안해연, 이양희, 박대환, 2012, 템플스테이 체험관광이 관광 만족, 추천의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 연구; 김용재, 2015, 서원 체험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 지역 서원 체험 여행객을 대상으로)와는 “템플스테이 체험관광이 관광만족, 추천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보면 템플스테이의 체험관광요인인 대인 교류감, 휴식, 자연 친화감 등은 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에 대한 만족감은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길·정윤조(2011, 템플스테이 체험과 체험 후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학 연구; 서용석, 2015,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심신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템플스테이 체험과 체험 후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이 참가자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템플스테이 사찰 환경의 구성요소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감정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서용석, 2015,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심신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유영준·전병길(2011, 에듀테인먼트형 문화 관광체험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 : 경북지역을 사례로 하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 p.140-150; 서용석, 2015,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심신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은 문화체험관광으로써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탐색하고, 경북지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현황 및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이미지분석으로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북 템플스테이 플러스 에듀테인먼트 문화 관광체험상품(김용훈, 2011, 체험경제시대의 템플스테이 관광만족도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60, p.315-339)의 개발모형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문화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해당 지역의 문화 관광체험 프로그램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비롯하여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관광 상품으로써의 기능성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 최유석(2000, 중학생 수련활동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은 수련활동의 경험횟수와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련활동의 경험횟수가 많을수록 목표지향성, 자기존재 독특성, 대인관계, 역할의지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고,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최선자, 2008, 비행청소년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사찰 템플스테이 효과성 연구).

우리나라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경쟁을 통한 입시 관문을 통과해야만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지나친 압력으로 발생하는 과밀한 현상을 부정적인 정서 문제로 표출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과 획일적이고 주입식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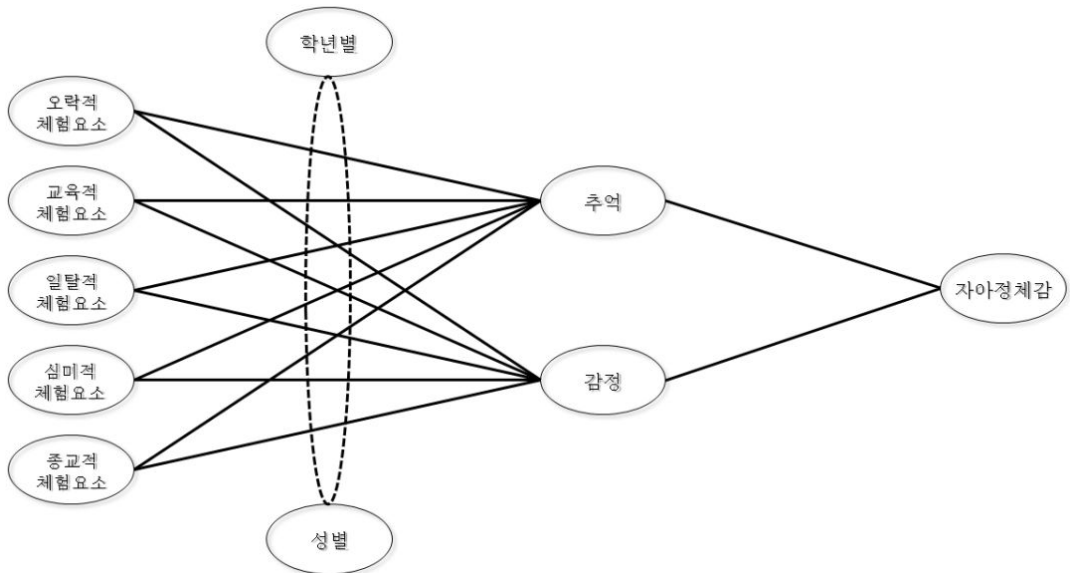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과 교육 방안에 관련하여 제시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정은(2004, 청소년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과 교육방안)은 개신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소외감,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 등의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은 정체성 위기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죄책감증상은 다른 어떤 심리적 증상보다 종교적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정체성의 위기와 이에 대한 극복 과정이 모두 종교적인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오경애(2000, 고등학생의 종교성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의 연구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종교유무와 자아정체감 발달수준의 유의성은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인 자기존재의식 영역에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다른 종교보다도 불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자아정체감과 종교

성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대인관계와 대인역할 기대에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성의 긍정적인 영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추론한 것을 연구결과에서 밝힌 것이다. 인간이 가진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종교성은 인간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힘과 치료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정서변화는 우리사회가 꼭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의 정서 변화와 관련하여 종교성의 역할이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또래집단의 체험 프로그램으로서의 사찰 템플스테이가 청소년들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를 위한 대책으로서의 템플스테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각 사찰에서 수련회, 단기 출가, 파라미타 등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이나 실천사항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사찰 템플스테이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 등을 제시한 논문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사찰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체험요소들이 청소년의 추억 형성이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추억과 감정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들이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위한 대책 마련을 돕고자 하였다.

## 제 3 장 연구 설계

### 제 1 절 연구 모형

<그림 3-1> 연구 모형



위 그림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의 각종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적 측면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를 선정하였다. Pine & Gilmore가 분류한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1998)와 종교적 체험요소(박도운, 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5가지 체험요소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선정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각종 체험요소가 청소년들의 감정과 추억, 그리고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형성하며 성장할 때 사회와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는 개인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 및 국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조절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선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 선정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학년별,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는 동일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를 체험하더라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제 2 절 연구 가설

- 가설 1.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한 추억과 감정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본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문헌고찰, 예비조사, 그리고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억 및 감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체험요소 4문항, 교육적 체험요소 5문항, 일탈적 체험요소 4문항, 심미적 체험요소 5문항, 종교적 체험요소 5문항)에 관련된 23문항, 추억 및 감정에 관련된 8문항,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7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참가횟수, 종교)에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용 척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아니다’의 답변을 1점으로 시작하여 ‘아니다’의 답변은 2점, ‘보통이다’의 답변은 3점, ‘그렇다’의 답변은 4점, ‘매우 그렇다’의 답변을 5점으로 설정)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표3-1>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조사문항	변수	문항 수	소계	측정척도	
체험요소	오락적	4	23	리커트 5점척도	
	교육적	5			
	일탈적	4			
	심미적	5			
	종교적	5			
추억 및 감정	감정	3	8		
	추억	5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7	7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1	4		명목 및 비율
	연령	1			
	참가횟수	1			
	종교	1			
총계		42			

## 제 4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추억, 감정, 자아정체감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 및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ine & Gilmore의 4가지 체험요소(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와 종교적 체험요소의 총 5가지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를 바탕으로 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템플스테이 체험이 학생들의 추억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추억과 감정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템플스테이 체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템플스테이 체험이 학생들의 추억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추억과 감정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대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설문조사 결과를 IBM SPSS 22.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이 학생들의 추억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추억과 감정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제 4 장 실증분석

### 제 1 절 표본의 특성

####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학생	105	50.0
	여학생	105	50.0
학년	중학교 1학년	70	33.3
	중학교 2학년	70	33.3
	중학교 3학년	70	33.3
참가횟수	1회	57	27.1
	2회	72	34.3
	3회	39	18.6
	4회 이상	42	20.0
종교	개신교	50	23.8
	불교	51	24.3
	천주교	42	20.0
	기타 종교	7	3.3
	무교	60	28.6
전체		210	100.0

그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105명(50.0%), 여학생이 105명(50.0%)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70명(33.3%), 2학년이 70명(33.3%), 3학년도 70명(33.3%)으로, 각 학년별 70명씩 균등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횟수는 1회가 57명(27.1%), 2회가 72명(34.3%), 3회가 39명(18.6%), 4회 이상이 42명(20.0%)으로 나타났다. 또한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학생들의 종교는 개신교가 50명(23.8%), 불교가 51명(24.3%), 천주교가 42명(20.0%), 기타 종교가 7명(3.3%), 무교가 60명(28.6%)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측정도구의 검증

### 1. 타당도분석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체험요소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KMO 측도는 .838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chi^2=2,059.806$ ,  $p<.001$ )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적재량이 0.4 이상이면 해당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은 다섯 개로 분류되었는데, 누적 분산 설명력은 61.454%로 나타나 요인의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4개 항목, 두 번째 요인은 5개 항목, 세 번째 요인도 5개 항목, 네 번째 요인도 5개 항목, 다섯 번째 요인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의 내용상 첫 번째 요인은 오락적 체험요소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교육적 체험요소, 세 번째 요인은 종교적 체험요소, 네 번째 요인은 심리적 체험요소, 다섯 번째 요인은 일탈적 체험요소로 명명하였다.

한편 하위요인이 없는 추억, 감정, 자아정체감은 요인을 한 개로 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 적재량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2> 체험요소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분석

항목	1	2	3	4	5
오락적 체험요소 2	<b>.819</b>	-.015	.167	.121	.043
오락적 체험요소 3	<b>.815</b>	-.055	.104	.131	.116
오락적 체험요소 1	<b>.643</b>	.119	.283	.321	.057
오락적 체험요소 4	<b>.635</b>	.016	.364	.212	.129
교육적 체험요소 2	.121	<b>.823</b>	-.066	.029	.056
교육적 체험요소 3	-.134	<b>.779</b>	.013	.152	.057
교육적 체험요소 1	.025	<b>.730</b>	-.097	.015	.317
교육적 체험요소 5	-.006	<b>.676</b>	.129	-.238	.341
교육적 체험요소 4	.020	<b>.601</b>	-.053	.008	.483
종교적 체험요소 5	.101	-.126	<b>.769</b>	.125	.135
종교적 체험요소 2	.179	.145	<b>.743</b>	.099	-.067
종교적 체험요소 4	.197	-.166	<b>.630</b>	.222	.181
종교적 체험요소 1	.232	.036	<b>.615</b>	.433	.112
종교적 체험요소 3	.471	.059	<b>.608</b>	-.071	-.016
심미적 체험요소 4	.255	.080	.013	<b>.780</b>	-.040
심미적 체험요소 5	.288	.036	-.020	<b>.695</b>	.196
심미적 체험요소 3	.059	-.082	.324	<b>.605</b>	.165
심미적 체험요소 1	.523	-.119	.159	<b>.593</b>	.106
심미적 체험요소 2	-.030	.073	.284	<b>.585</b>	-.045
일탈적 체험요소 2	.053	.193	.008	-.002	<b>.809</b>
일탈적 체험요소 1	.092	.270	.108	.038	<b>.693</b>
일탈적 체험요소 4	.262	.065	.094	.239	<b>.679</b>
일탈적 체험요소 3	-.057	.384	.135	.078	<b>.509</b>
고유값(eigen value)	3.051	3.019	2.824	2.744	2.496
공통분산(%)	13.267	13.126	12.279	11.931	10.852
누적분산(%)	13.267	26.393	38.672	50.602	61.454



##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요인별로 알파 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오락적 체험요소 0.720, 교육적 체험요소 0.796, 일탈적 체험요소 0.601, 심미적 체험요소 0.703, 종교적 체험요소 0.767, 추억 0.729, 감정 0.768, 자아정체감 0.626으로 모든 변수와 구성요인 간의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3> 신뢰도 분석

변수	구성요소	Cronbach's $\alpha$	항목수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	.720	4
	교육적 체험요소	.796	5
	일탈적 체험요소	.601	4
	심미적 체험요소	.703	5
	종교적 체험요소	.767	5
	추억	.729	3
	감정	.768	5
	자아정체감	.626	7

## 제 3 절 기술통계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가.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대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산출 결과 체험요소에서는 오락적 체험요소가 3.97, 교육적 체험요소가 3.86, 일탈적 체험요소가 3.95, 심미적 체험요소가 4.00, 종교적 체험요소가 3.89로 나타났다. 추억은 4.06, 감정은 4.10으로 나타났고, 자아정체감은 3.86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한 결과, 아래 <표4-4>와 같이 모두 2 미만의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4> 기술통계

변수	구성요소	M	SD	왜도	첨도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	3.97	0.65	-0.58	-0.46
	교육적 체험요소	3.86	0.77	-0.62	-0.40
	일탈적 체험요소	3.95	0.63	-0.81	0.88
	심미적 체험요소	4.00	0.67	-0.88	0.44
	종교적 체험요소	3.89	0.72	-0.84	0.65
	추억	4.06	0.68	-1.22	1.50
	감정	4.10	0.59	-1.14	1.25
	자아정체감	3.86	0.61	-0.75	0.34

## 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템플스테이의 체험 요소 중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와 추억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0$ ,  $p<.01$ ). 그리고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 중 오락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와 감정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0$ ,  $p<.05$ ). 한편 자아정체감은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의 모든 체험요소들을 비롯하여 추억, 감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0$ ,  $p<.01$ ).

<표 4-5>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오락적 체험요소	1							
2. 교육적 체험요소	.049	1						
3. 일탈적 체험요소	.270**	.535**	1					
4. 심미적 체험요소	.545**	.030	.259**	1				
5. 종교적 체험요소	.568**	.002	.234**	.468**	1			
6. 추억	.035	.609**	.560**	.084	.041	1		
7. 감정	.543**	.015	.174*	.632**	.530**	.003	1	
8. 자아정체감	.249**	.627**	.608**	.321**	.270**	.562**	.349**	1

\*  $p<.05$ , \*\*  $p<.01$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 가.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각 체험요소 및 추억, 감정, 그리고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교육적 체험요소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느낀 교육적 체험요소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6>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성별	<i>N</i>	<i>M</i>	<i>SD</i>	<i>t</i>	<i>p</i>
오락적 체험요소	남학생	105	3.90	0.65	-1.350	.179
	여학생	105	4.03	0.65		
교육적 체험요소	남학생	105	3.74	0.79	-2.291*	.023
	여학생	105	3.98	0.74		
일탈적 체험요소	남학생	105	3.96	0.64	0.327	.744
	여학생	105	3.93	0.62		
심미적 체험요소	남학생	105	4.02	0.69	0.309	.758
	여학생	105	3.99	0.65		
종교적 체험요소	남학생	105	3.83	0.61	-1.108	.269
	여학생	105	3.94	0.82		
추억	남학생	105	4.03	0.63	-0.541	.589
	여학생	105	4.08	0.72		
감정	남학생	105	4.07	0.56	-0.609	.543
	여학생	105	4.12	0.61		
자아정체감	남학생	105	3.78	0.62	-1.926	.055
	여학생	105	3.94	0.58		

\*  $p < .05$

## 나.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에 따라 각 체험요소 및 추억, 감정, 그리고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7>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학년	<i>N</i>	<i>M</i>	<i>SD</i>	<i>F</i>	<i>p</i>
오락적 체험요소	1학년	70	3.92	0.67	1.117	.329
	2학년	70	4.06	0.63		
	3학년	70	3.92	0.66		
교육적 체험요소	1학년	70	3.92	0.79	0.383	.682
	2학년	70	3.81	0.78		
	3학년	70	3.85	0.76		
일탈적 체험요소	1학년	70	3.94	0.66	0.018	.982
	2학년	70	3.94	0.63		
	3학년	70	3.96	0.61		
심미적 체험요소	1학년	70	4.05	0.65	0.540	.584
	2학년	70	4.02	0.69		
	3학년	70	3.93	0.68		
종교적 체험요소	1학년	70	3.86	0.74	0.236	.790
	2학년	70	3.94	0.70		
	3학년	70	3.87	0.73		
추억	1학년	70	4.12	0.62	0.507	.603
	2학년	70	4.03	0.65		
	3학년	70	4.02	0.77		
감정	1학년	70	4.15	0.54	0.668	.514
	2학년	70	4.10	0.57		
	3학년	70	4.03	0.65		
자아정체감	1학년	70	3.85	0.61	0.122	.885
	2학년	70	3.89	0.63		
	3학년	70	3.84	0.58		

## 제 4 절 가설의 검증

### 1.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4.070,  $p < .001$ ),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약 44.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확인됨으로써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는 추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 ,  $p < .001$ ). 즉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추억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8>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beta$	<i>t</i>	<i>p</i>	<i>VIF</i>
	(상수)	1.399	.308		4.536	.000	
추억	오락적 체험요소	-0.102	.071	-.098	-1.433	.153	1.757
	교육적 체험요소	0.374	.055	.425	6.849***	.000	1.442
	일탈적 체험요소	0.377	.070	.351	5.391***	.000	1.588
	심미적 체험요소	0.036	.065	.035	0.554	.581	1.531
	종교적 체험요소	-0.003	.061	-.003	-0.045	.964	1.579
$F=34.070(p < .001)$ , $R^2=.455$ , $adjR^2=.442$							

\*\*\*  $p < .001$

체험요소와 추억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체험요소와 조절변수인 성별과 학년을 표준화 변환하였다. 그리고 앞서 추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를 1 단계에서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조절변수인 성별과 학년은 2단계에서 함께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교육적 체험요소와 성별, 교육적 체험요소와 학년, 일탈적 체험요소와 성별, 일탈적 체험요소와 학년의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하여 독립변수에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R^2$  변화량이 유의수준 하에서 증가하였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R^2$  변화량을 보면 3단계의 유의 확률 F변화량이 .525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인 .05보다 크므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체험요소와 추억 사이에서 성별과 학년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9> 체험요소와 추억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모형 요약

모형요약									
모형	R	$R^2$	adj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변화량
					$R^2$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669 <sup>a</sup>	.448	.443	.50705	.448	84.028	2	207	.000
2	.672 <sup>b</sup>	.451	.441	.50802	.003	.602	2	205	.549
3	.678 <sup>c</sup>	.460	.438	.50901	.009	.802	4	201	.525

a. 예측변수: (상수),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b. 예측변수: (상수),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성별, 학년

c. 예측변수: (상수),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성별, 학년, 교육적 체험요소 \* 성별, 일탈적 체험요소 \* 성별, 교육적 체험요소 \* 학년, 일탈적 체험요소 \* 학년

<표 4-10> 체험요소와 추억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beta$	$t$	$p$	$\beta$	$t$	$p$
	교육적 체험요소	.436	6.965***	.000	.436	6.940***	.000
	일탈적 체험요소	.327	5.300***	.000	.334	5.377***	.000
	성별	-.023	-0.445	.657	-.019	-0.363	.717
	학년	-.052	-0.999	.319	-.050	-0.958	.339
추억	교육적 체험요소*성별				.010	0.169	.866
	일탈적 체험요소*성별				.017	0.278	.782
	교육적 체험요소*학년				-.045	-0.726	.469
	일탈적 체험요소*학년				.102	1.610	.109
	$F$		42.153***			21.396***	
	$R^2$		.451			.460	
	$adjR^2$		.441			.438	

\*\*\*  $p < .001$

### 가. 성별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본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가 추억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고( $\beta > 0, p < .01$ ), 여학생은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가 추억에 정(+)<sup>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sup>( $\beta > 0, p < .001$ ), 오락적 체험요소는 추억에 부(-)<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 $\beta < 0, p < .05$ ).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가 높아질수록 추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오락적 체험요소가 높아질수록 추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성별에 따른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변수	독립변수	남학생			여학생		
		$\beta$	$t$	$p$	$\beta$	$t$	$p$
추억	오락적 체험요소	.045	0.499	.619	-.244	-2.272*	.025
	교육적 체험요소	.479	5.561***	.000	.381	4.121***	.000
	일탈적 체험요소	.301	3.314**	.001	.368	3.805***	.000
	심미적 체험요소	-.068	-0.740	.461	.111	1.189	.237
	종교적 체험요소	.048	0.549	.584	.024	0.243	.808
	$F$		19.177			16.578	
	$R^2$		.492			.456	
	$adjR^2$		.466			.428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학년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본을 학년별로 분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2, 3학년 모두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가 추억에 정(+)<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sup>( $\beta > 0, p < .001$ ),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

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는 모든 학년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학년별로 추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2> 학년에 따른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 변수	독립 변수	1학년			2학년			3학년		
		$\beta$	$t$	$p$	$\beta$	$t$	$p$	$\beta$	$t$	$p$
	오락	-.196	-1.527	.132	.113	1.112	.270	-.169	-1.326	.190
	교육	.459	4.071***	.000	.590	6.499***	.000	.274	2.315*	.024
추억	일탈	.284	2.317*	.024	.302	3.174**	.002	.445	3.731***	.000
	심미	.126	1.067	.290	-.045	-0.484	.630	.021	0.167	.868
	종교	.051	0.465	.644	-.072	-0.741	.461	.028	0.212	.833
$F$		10.945***			21.657***			8.039***		
$R^2$		.461			.629			.386		
$adjR^2$		.419			.599			.338		

\*  $p < .05$ , \*\*  $p < .01$ , \*\*\*  $p < .001$

## 2.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9.248$ ,  $p < .001$ ),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약 47.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VIF$ 가 모두 10 미만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는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 ,  $p < .01$ ). 즉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에 대한 평가

가 좋을수록 감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3>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beta$	<i>t</i>	<i>p</i>	<i>VIF</i>
	(상수)	1.299	.258		5.031	.000	
감정	오락적 체험요소	0.169	.060	.188	2.833**	.005	1.757
	교육적 체험요소	0.017	.046	.022	0.363	.717	1.442
	일탈적 체험요소	-0.051	.059	-.055	-0.871	.385	1.588
	심미적 체험요소	0.382	.054	.434	7.024***	.000	1.531
	종교적 체험요소	0.189	.051	.232	3.699***	.000	1.579

$F=39.248(p<.001)$ ,  $R^2=.490$ ,  $adjR^2=.478$

\*\*  $p<.01$ , \*\*\*  $p<.001$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와 추억 간, 성별과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체험요소와 조절변수인 성별과 학년을 표준화 변환하였다. 그리고 앞서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를 1단계에서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성별과 학년도 함께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오락적 체험요소와 성별, 오락적 체험요소와 학년, 심미적 체험요소와 성별, 심미적 체험요소와 학년, 종교적 체험요소와 성별, 종교적 체험요소와 학년의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하여 독립변수에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R^2$  변화량이 유의수준 하에서 증가하였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R^2$  변화량을 보면 3단계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18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인 .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에서 성별과 학년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별과 학년이 어느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각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 및 그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3 단계에서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는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미적 체험요소와 성별, 종교적 체험요소와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1$ ). 심미적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에서 성별은 부(-)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 ), 종교적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에서 성별은 정(+)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종교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4> 체험요소와 감정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모형	R	R <sup>2</sup>	adj 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변화량
					R <sup>2</sup>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699 <sup>a</sup>	.488	.481	.42363	.488	65.543	3	206	.000
2	.701 <sup>b</sup>	.491	.479	.42442	.003	0.616	2	204	.541
3	.727 <sup>c</sup>	.529	.503	.41462	.037	2.626	6	198	.018

a. 예측변수: (상수), 종교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  
 b. 예측변수: (상수), 종교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 성별, 학년  
 c. 예측변수: (상수), 종교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 성별, 학년, 종교적 체험요소 \* 성별, 심미적 체험요소 \* 성별, 오락적 체험요소 \* 성별, 종교적 체험요소 \* 학년, 심미적 체험요소 \* 학년, 오락적 체험요소 \* 학년

<표 4-15> 체험요소와 감정 간, 성별과 학년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2단계			3단계		
		$\beta$	$t$	$p$	$\beta$	$t$	$p$
	오락적 체험요소	.181	2.740**	.007	.176	2.667**	.008
	심미적 체험요소	.423	6.860***	.000	.427	6.870***	.000
	종교적 체험요소	.228	3.647***	.000	.176	2.711**	.007
	성별	.017	0.337	.737	.024	0.485	.629
	학년	-.053	-1.055	.293	-.054	-1.104	.271
감정	오락적 체험요소*성별				.015	0.228	.819
	심미적 체험요소*성별				-.181	-2.945**	.004
	종교적 체험요소*성별				.177	2.743**	.007
	오락적 체험요소*학년				-.048	-0.740	.460
	심미적 체험요소*학년				.028	0.454	.651
	종교적 체험요소*학년				.079	1.276	.204
	$F$		39.426***			20.210***	
	$R^2$		.491			.529	
	$adjR^2$		.479			.503	

\*\*  $p < .01$ , \*\*\*  $p < .001$

앞서 유의하게 나타난 심미적 체험요소 및 종교적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여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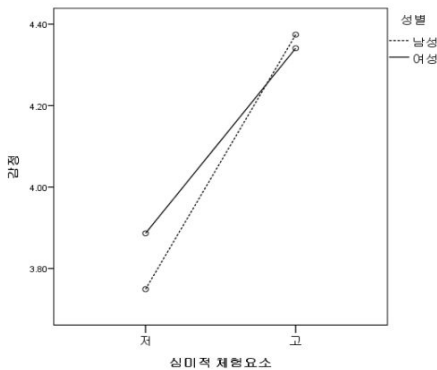
그 결과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남자는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 $\beta = .672$ ), 여자는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beta = .296$ ). 종교적 체험요소는 남자의 경우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반면에, 여자는 종교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beta = .423$ ).

결과적으로 심미적 체험요소 및 종교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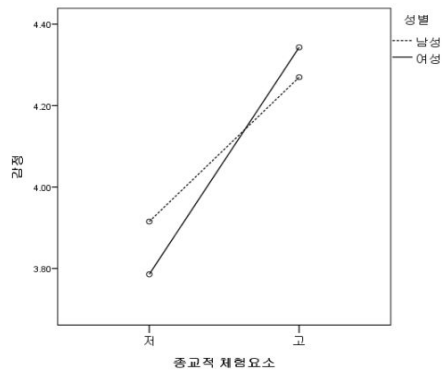
<그림 4-1>

심미적 체험요소와 감정  
 - 성별의 조절효과



<그림 4-2>

종교적 체험요소와 감정  
 - 성별의 조절효과



## 가. 성별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본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심미적 체험요소만이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beta > 0, p < .001$ ), 여학생은 심미적 체험요소 뿐만 아니라 종교적 체험요소도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0, p < .01$ ), 일탈적 체험요소는 감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 p < .05$ ).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심미적 체험요소가 높아질수록 감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종교적 체험요소가 높아질수록 감정이 높아지며,

일탈적 체험요소는 높아질수록 감정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성별에 따른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변수	독립변수	남학생			여학생		
		$\beta$	$t$	$p$	$\beta$	$t$	$p$
감정	오락적 체험요소	.143	1.800	.075	.174	1.664	.099
	교육적 체험요소	-.076	-0.993	.323	.123	1.371	.173
	일탈적 체험요소	.127	1.573	.119	-.207	-2.205*	.030
	심미적 체험요소	.672	8.288***	.000	.296	3.271**	.001
	종교적 체험요소	-.029	-0.372	.711	.423	4.358***	.000
	$F$		29.597			18.790	
	$R^2$		.599			.487	
	$adjR^2$		.579			.461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학년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본을 학년별로 분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2, 3학년 모두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0$ ,  $p < .001$ ), 종교적 체험요소는 2, 3학년에서만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 ,  $p < .05$ ), 오락적 체험요소는 1, 2학년에서만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 ,  $p < .05$ ).

<표 4-17> 학년에 따른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 변수	독립 변수	1학년			2학년			3학년		
		$\beta$	$t$	$p$	$\beta$	$t$	$p$	$\beta$	$t$	$p$
	오락	.250	2.029*	.047	.281	2.418*	.018	.077	0.671	.505
	교육	-.028	-0.255	.799	.048	0.462	.645	.045	0.421	.675
감정	일탈	.064	0.541	.591	-.021	-0.191	.849	-.162	-1.514	.135
	심미	.422	3.715***	.000	.366	3.434***	.001	.449	4.057***	.000
	종교	.135	1.275	.207	.224	2.025*	.047	.320	2.715**	.009
$F$		12.959***			13.556***			13.015***		
$R^2$		.503			.514			.504		
$adjR^2$		.464			.476			.465		

\*  $p < .05$ , \*\*  $p < .01$ , \*\*\*  $p < .001$

### 3. 체험요소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51.136$ ,  $p < .001$ ),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약 54.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VIF$ 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남으로써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오락적 체험요소를 제외한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



의한 정(+)<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 p < .05$ ).</sup>

즉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8> 체험요소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beta$	<i>t</i>	<i>p</i>	<i>VIF</i>
	(상수)	0.349	.249		1.400	.163	
	오락적 체험요소	-0.025	.058	-.027	-0.442	.659	1.757
자아 정체감	교육적 체험요소	0.370	.044	.470	8.395***	.000	1.442
	일탈적 체험요소	0.274	.056	.285	4.844***	.000	1.588
	심미적 체험요소	0.170	.052	.187	3.246**	.001	1.531
	종교적 체험요소	0.109	.049	.130	2.219*	.028	1.579
$F=51.136(p<.001), R^2=.556, \text{adj}R^2=.545$							

\*  $p < .05$ , \*\*  $p < .01$ , \*\*\*  $p < .001$

#### 4. 추억과 감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체험요소들을 통해 형성된 추억과 감정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80.158, p < .001$ ),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약 43.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남으로써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추억과 감정 모두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정(+)<sup>3</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 ,  $p < .001$ ). 즉 추억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을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9> 추억과 감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beta$	<i>t</i>	<i>p</i>	<i>VIF</i>
	(상수)	0.355	.292		1.216	.225	
자아 정체감	추억	0.502	.047	.561	10.757***	.000	1.000
	감정	0.358	.054	.347	6.646***	.000	1.000

$F=80.158(p<.001)$ ,  $R^2=.436$ ,  $adjR^2=.431$

\*\*\*  $p < .001$

## 제 6 절 분석 결과 논의

### 1. 분석 결과 요약

현대인과 스트레스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정서적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다른 시기보다 지속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더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형성하며 성장할 때, 사회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정서와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청소년의 정서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대책으로써 템플

스태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정서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의 대책으로서의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템플스테이가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지만,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특히 정서적 측면의 지속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에,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를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를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Pine & Gilmore, 1998), 그리고 종교적 체험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청소년의 추억,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과 학년별 조절효과에 따라서 분석하고, 추억과 감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J중학교 1, 2, 3학년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 특성별 차이 분석 결과

첫째,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는 추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추억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는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감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추억과 감정 모두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억과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정체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오락적 체험요소를 제외한,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는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자아정체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심미적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에서 성별은 부(-)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에서 성별은 정(+)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종교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20> 연구 결과 요약

가설	결과
오락적 체험요소 → 추억	영향 없음
교육적 체험요소 → 추억	정(+) <sup>1</sup> 의 영향
일탈적 체험요소 → 추억	정(+) <sup>1</sup> 의 영향
심미적 체험요소 → 추억	영향 없음
종교적 체험요소 → 추억	영향 없음
오락적 체험요소 → 감정	정(+) <sup>1</sup> 의 영향
교육적 체험요소 → 감정	영향 없음
일탈적 체험요소 → 감정	영향 없음
심미적 체험요소 → 감정	정(+) <sup>1</sup> 의 영향
종교적 체험요소 → 감정	정(+) <sup>1</sup> 의 영향
추억 → 자아정체감	정(+) <sup>1</sup> 의 영향
감정 → 자아정체감	정(+) <sup>1</sup> 의 영향
오락적 체험요소 → 자아정체감	영향 없음
교육적 체험요소 → 자아정체감	정(+) <sup>1</sup> 의 영향
일탈적 체험요소 → 자아정체감	정(+) <sup>1</sup> 의 영향
심미적 체험요소 → 자아정체감	정(+) <sup>1</sup> 의 영향
종교적 체험요소 → 자아정체감	정(+) <sup>1</sup> 의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심미적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 종교적 체험요소와 감정 사이
학년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없음

## 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 중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가 남학생의 추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 요소가 여학생의 추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가 추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1-(2) 그러나 여학생에게만 오락적 체험요소가 추억에 부(-)의 역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학년에 상관없이 1, 2,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 중,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가 추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추억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3.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심미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심미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3-(2) 여학생에게만 종교적 체험요소는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일탈적 체험요소는 감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종교적, 일탈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종교적, 일탈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학년에 상관없이 1, 2, 3학년 학생 모두에게 심미적 체험요소가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교육적, 일탈적)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교육적, 일탈적, 심미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교육적, 일탈적, 심미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4-(2) 종교적 체험요소는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에서만 감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락적 체험요소는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에서만 감정에 유의한 정(+)의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오락적, 종교적)가 청소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5.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한 추억과 감정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한 추억과 감정 모두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 ,  $p < .001$ ).

∴ ‘템플스테이의 체험을 통한 추억과 감정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분석결과와 요약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70명씩, 총 210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학생들의 감정과 추억 형성,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감정과 추억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들 중 교육적 체험요소와 일탈적 체험요소가 학생들의 추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감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함으로써 입시 경쟁과 학업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명상과 참회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추억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오락적 체험요소, 교육적 체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가 추억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학년과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체험요소가 추억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성별과 학년이 유의한 조절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체험요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성별에 따라 심미적 체험요소, 종교적 체험요소에 유의한 조절 역할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종교적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에 유의한 조절 역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감정 형성을 위해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체계화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위에서 학생들에게 형성된 추억과 감정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추억과 감정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정, 학교를 비롯한 지역 사회, 종교계,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템플스테이의 각종 체험요소들이 학생들의 추억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추억과 감정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영향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며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사찰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사찰안내를 비롯한 예불, 공양, 참선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실시되고 있는 사찰이 많았다. 또한 사찰 주변의 환경,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찰만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찰만의 특색이 담긴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사찰에 머물며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그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는데, 정형화되고 반복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기대감이나 호기심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정형화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사찰 템플스테이에서 실시되는 이유에는 템플스테이의 참가 기간이 짧은 이유도 있겠지만,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해 템플스테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각 사찰만의 특색이 담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보다는 정형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만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도 쉽지 않다.

OECD가 선정한 세계의 성공적인 5대 문화관광 상품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스템의 변화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참가자들의 추억에 남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한 지역에 현장 적용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통한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질이 높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적용을 거치지 않는다면 템플스테이의 객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더불어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횡단적,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10명만으로 연구의 대상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의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1년이라는 한정적인 기간 동안의 템플스테이 수요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실시될 연구에서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템플스테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과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성적 측면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실시될 연구에서는 면담과 같은 정성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템플스테이 체험자들의 감정적 반응 측면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을 비롯하여 유용한 방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었고 정량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에 따른 추억과 감정,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추억과 감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정체감 및 정서 형성을 위하여 사회 각계에서 실천해야 할 노력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세분화 된 템플스테이의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등 후속 연구를 촉구하게 되었다. 또한 체계화되고 세분화 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 문화관광 상품인 템플스테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세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참 고 문 헌 -

- 김기완·김남조(2007). 체험관광 구성요인 분석 : 서천군 금강 하굿둑의 탐조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연구』
- 김미영(2015). 중학교 학교폭력예방 음악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김민자(2014). 템플스테이 체험이 감정 및 여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내국인과 외국인 비교
- 김수성(2002). 外國人 觀光客의 템플스테이(Temple Stay)에 관한 探索的 研究
- 김용훈(2011). 체험경제시대의 템플스테이 관광만족도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 김태영(2009). 『종교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도경록(2000). 종교관광참여자의 만족: 불교사찰방문자의 만족에 미치는 기대·  
성과·불일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 류경(2000).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 및 학교적응, 진로계획과의 관계
- 박도윤(2014).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체험의 기억과 즐거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박정은(2004). 청소년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과 교육방안
- 서용석(2014).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심신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석경동(2008). 템플스테이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송영민(2007). 체험활동 구성요인과 만족과의 구조모형분석 : 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 송은정(2014). 템플스테이 참여 동기와 체험치유 관계
- 송춘뢰(2012). 대인관계 감정, 공감 및 추억이 브랜드 점포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경이(2015). 사찰음식 관여도가 템플스테이의 체험만족도 추천,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신동주(2010). 이벤트에서의 체험요소가 체험즐거움, 체험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Pine & Gilmore의 체험이론을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 심원섭 · 김자영(2011). 템플스테이 참가동기와 체험만족도 비교연구. *관광학 연구*  
 안영철(2002). 전통예절과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연구: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연구』  
 안해연, 이양희, 박대환(2012). 템플스테이 체험관광이 관광만족, 추천의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 연구*  
 연희경(2008). 불교생태학에 기초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모형 연구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오경애(2000). 고등학생의 종교성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유영준, 전병길(2011). 에듀테인먼트형 문화 관광체험상품으로서 템플스테이  
 : 경북지역을 사례로 하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  
 윤설민 · 정희진(2012). 플로우 경험의 구성요소, 만족도, 그리고 행동의도 간  
 구조적 관계: 템플스테이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윤지윤(2010). 청소년의 창의적 인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 성숙도간의 관계  
 이광희 · 김영준(1999). 『체험관광 상품 개발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이인정 외(2002).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나남출판)  
 이훈(2006). 축제체험의 개념적 구성모형. 『관광학 연구  
 장지선(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저원태(2013). 미얀마 종교관광 특성에 관한 연구 : 신성한 관광동기와 세속적  
 관광동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병길 · 김민자(2012). 템플스테이 만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감정의 매개효  
 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전병길, 정윤조(2011). 템플스테이 체험과 체험 후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학 연구*  
 전병길 · 정윤조(2008). 템플스테이 체험 과정에서 사찰환경이 참가자의 감정  
 ·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 · 레저연구』 정  
 병웅(1997). 사찰관광개발을 통한 종교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정철(2000).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동기, 체험, 만족에 관한

-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은경(2010). 어린이 범죄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모형 연구
- 조선(2014). SIT 체험요인이 즐거움과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을 중심으로
- 진애니(2012). 유산관광지의 고유성, 관광체험 및 체험만족 간 관계
- 최선자(2008). 비행청소년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사찰 Temple Stay 효과성 연구
- 최유석(2000). 중학생 수련활동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 템플스테이 사무국(2009). 템플스테이 평가 및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템플스테이 평가 및 운영활성화 방안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05). 템플스테이 운영 지침서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05).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사찰 수용태세 개선 전략 수립 연구보고서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0). 템플스테이 심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현방안 연구
-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4).
-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6).
- 한국 청소년 개발원(2001).
- 한국 청소년 연구원(1992).
- 한숙영 · 엄서호(2005). Pine과 Gilmore의 체험영역 모델에 관한 검증 : 한산모시 축제 체험활동 참가자 만족을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 한유미(2015). 문경 차 사발 축제의 체험요소가 재방문 의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 체험 즐거움과 브랜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허갑중(2004). 「전통숙박시설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Bitner M. J(1990). Evaluation Services Encounters: The effect of physical Surrounding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 Dolcos, F., & Cabeza, R.(2002). Event-Related Potentials of Emotional

Memory: Encoding Pleasant, Unpleasant,  
and Neutral Pictures.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Gilmore, H. J. & Pine, B. J.(2002a). The Experience is the Marketing.

Gilmore, H. J. & Pine, B. J.(2002b). Differentiating Hospitality Operations  
via Experiences: Why Selling Services  
is Not Enough.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Oliver, R. L. (1997).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New York: Irwin/Mc Graw-Hill



## - 부 록 -

### 부록 1. 템플스테이 실시 사찰 현황

지역	사찰
서울	관문사(觀門寺), 금선사(金仙寺), 길상사(吉祥寺), 묘각사(妙覺寺), 보문사(普門寺), 봉은사(奉恩寺), 조계사(曹溪寺), 진관사(津寬寺), 호압사(虎壓寺), 화계사(華溪寺), 관문사(觀門寺), 금선사(金仙寺), 길상사(吉祥寺), 묘각사(妙覺寺), 보문사(普門寺), 봉은사(奉恩寺), 조계사(曹溪寺), 진관사(津寬寺), 호압사(虎壓寺), 화계사(華溪寺)
경기·인천	묘적사(妙寂寺), 백련사(白蓮寺), 법륜사(法輪寺), 보광사(普光寺), 봉인사(奉印寺), 수도사(修道寺), 신륵사(神勒寺), 연등국제선원(燃燈國際禪院), 용문사(龍門寺), 용주사(龍珠寺), 육地藏사(六地藏寺), 전등사(傳燈寺), 흥국사(興國寺)
강원	건봉사(乾鳳寺), 구룡사(龜龍寺), 낙산사(洛山寺), 백담사(百潭寺), 법흥사(法興寺), 삼운사(三雲寺), 삼화사(三和寺), 신흥사(新興寺), 월정사(月精寺), 현덕사(賢德寺)
경상	고운사(孤雲寺), 골굴사(骨窟寺), 기림사(祇林寺), 김룡사(金龍寺), 내원정사(內院精舍), 대승사(大乘寺), 대원사(산청)(大源寺), 도리사(桃李寺), 동화사(桐華寺), 범어사(梵魚寺), 벽송사(碧松寺), 봉정사(鳳停寺), 성주사(聖住寺), 심원사(深源寺), 쌍계사(雙溪寺), 옥천사(玉泉寺), 용문사(남해)(龍門寺), 운수사(雲水寺), 유가사(瑜伽寺), 은해사(銀海寺), 장육사(莊陸寺), 직지사(直指寺), 통도사(通度寺), 파계사(把溪寺), 표충사(表忠寺), 해인사(海印寺), 흥법사(弘法寺)

충청	갑사(甲寺), 광덕사(廣德寺), 구인사(救仁寺), 마곡사(麻谷寺), 반야사(般若寺), 법주사(法住寺), 보탑사(寶塔寺), 부석사(浮石寺), 서광사(瑞光寺), 수덕사(修德寺), 영평사(永平寺), 지장정사(地藏精寺)
광주 · 전라	금산사(金山寺), 내소사(來蘇寺), 대원사(大原寺), 대흥사(大興寺), 도림사(道林寺), 무각사(無覺寺), 미황사(美黃寺), 백련사(白蓮寺), 백양사(白羊寺), 불회사(佛會寺), 선암사(仙巖寺), 선운사(禪雲寺), 송광사(松廣寺), 송광사(완주)(松廣寺(完州)), 신흥사(新興寺), 실상사(實相寺), 심향사(尋香寺), 쌍봉사(雙峰寺), 안국사(安國寺), 용천사(龍泉寺), 유마사(維摩寺), 증심사(證心寺), 천은사(泉隱寺), 화엄사(華嚴寺)
제주	관음사(觀音寺), 광명사(光明寺)

출처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연수 자료집>, 2008

## 부록 2. 설문지

：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각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과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템플스테이의 체험요소, 추억, 감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 활동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템플스테이의 체험자로서 다른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를 보는 것을 즐겼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참가자들의 템플스테이 체험을 보는 것이 유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	템플스테이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는	①	②	③	④	⑤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8	템플스테이는 진정한 배움이 있는 체험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9	템플스테이는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체험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템플스테이는 나를 잠시 동안 일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템플스테이는 나에게 일상의 삶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템플스테이 체험은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현실을 벗어나 잠시라도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템플스테이 사찰에 있는 것 자체에 기분이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템플스테이 사찰 환경과 주변 자연경관이 마음에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템플스테이의 분위기와 사찰환경에 즐거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템플스테이 사찰과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템플스테이 사찰의 건축 양식과 환경이 매력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식 국궁 체험을 체험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식 수행체험(예불, 발우 공양, 참선 등)을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승려와의 대화(차담 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동안 흥미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동안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동안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7	템플스테이 참가경험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8	템플스테이 참가로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9	템플스테이 참가경험은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템플스테이 참가경험으로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템플스테이 참가경험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해 놓은 일들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알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서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학생의 학년은?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3. 학생의 템플스테이 참가 횟수는?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4. 학생의 종교는?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종교 ⑤ 무교(종교 없음)